머리말 _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정에 서서 한국 교육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다 5

서장 _ 교육은 인간의 마음을 계발하고 나라를 발전시킨다 15

제1부 작은 자율만 주어도 학교는 이렇게 변한다

1장 _ 작은 자율만 주어도 학교는 이렇게 변한다 –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 27

자립형 사립학교는 별종의 학교인가 27

교육개혁방안의 하나로 등장한 자립형 사립학교 30

누가 '귀족학교'라고 했는가 33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과감한 시도 37

학생 선발전략의 조정 40

2장 _ 교육은 살아 있는 생명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46

낮에는 학교가 교육을 주도하지만, 하교 이후에는 학생들 스스로 주도하는 자치공화국 46

학생자치회냐, 학교자치회냐 49

공부는 쫓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하는 것 51

수준에 맞춰 진도를 정하고, 진로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 무학년 무계열 교육과정 54

자율시험 성공하지 못하면 민사고 존재할 이유 없다 58

3장 _ 대학의 선발방식이 고등학교 교육을 좌우한다 –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 허점 61

황성에 찾아오는 아이비리그의 대학들 61

민족반과 국제반의 차이는 국내 대학과 미국 대학의 차이 65

수능시험을 표준화해야 한다 67

미국 대학의 학생선발 71

4장 _ 토론학습의 다목적성 74
'빈 머리'로 토론수업을 하면 얻는 것이 없다 74
논쟁식 토론의 모형 80
적극적 동기와 자율적 탐구의 능력을 기른다 86
토론학습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91

5장 _ '영어교육에 미친 나라'의 올바른 영어교육 96
민사고에서는 영어로만 수업한다(?) 96
영어 상용의 교육적 한계 101
새로운 돌파구 – 토론학습을 통한 영어공부 104

제2부 "두 마리 토끼" – 교육의 효율성과 평등성

1장 _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111
민사고가 귀족학교의 모양새가 된 까닭 111
저소득층을 위한 '덕고장학생' 제도 114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 118
사교육이 정당화되려면 121

2장 _ 고등학교 평준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 124
고교평준화 정책의 배경 124
학생의 평준화보다 교육여건의 평준화가 먼저 129
사립학교는 어디로 갔는가 134
대안적 제도의 학교들 135
다원적 구조의 경쟁으로 137

3장 _ 사회투자로서의 영재교육은 필요한가? 그렇다면 장벽부터 허물어라 140

복지적 평등교육과 투자적 정예교육의 마찰 140

영재교육과 지도자교육의 병행 143

영재는 만들 수 없다. 찾을 수 있을 뿐이다 146

영재의 궁극적인 능력은 창의력이다 149

영재교육을 가로막는 두 개의 장벽, 입시교육과 고정학제 155

4장 _ '삼불정책'과 씨름하는 우리 대학 161

'삼불정책'은 허상과의 싸움이다 161

기여입학이 수월성의 원칙과 공존할 수 있는가 163

고교등급화는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166

자율적 선발권이 없는 대학도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168

5장 _ 신자유주의냐, 평등 이념이냐 – 교육개혁정책의 이념적 갈등 177

5·31 교육개혁방안 이후에 이념의 갈등은 시작됐다 177

신자유주의적 정책, 환상적 시나리오인가 180

평등주의적 이념의 저항 187

평등교육의 논리와 한계 193

신자유주의와 경쟁 논리에 대한 견제와 교정이 필요하다 198

제3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1장 _ 우리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살고 있다 207

산업사회의 새로운 굴절 207

산업사회의 굴절 현상 209

직업 세계의 변화 212

산업혁명, 생산혁명, 경영혁명, 그리고 …… 217

2장 _ 지식은 삶의 총체적 경험이다 222

정보와 지식의 차이 222

암묵적 지식의 총체성 225

포스트모더니즘의 충격 231

3장 _ 교육의 비중은 커져만 간다 236

문사를 위한 전통적 교육 236

지식과 일과 교육의 통합 239

교육적 지식의 재이해 243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교육을 중시하는 우리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247

학교는 해체될 것인가 254